

## 사라지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5)



부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원장  
전용문(소설가)

말과 행동은 항상 동일 할 수는 없다. 얼른 죽어야지 하는 늙은이의 말은 빨리 죽지 말아야지 하는 반의의 뜻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조금 더 있다 가겠다는 말은 오랫동안 더 머물고 싶다는 내재적 욕구를 반대로 표출한 것일 수도 있다. 적어도 그 시각 김현수의 기분은 그러했다. 그날 밤, 그는 술 취해 엉망이 된 세 사람의 남녀가 공유하게 될 이상한 불륜적 분위기를 맛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만약에 기묘한 일들이 벌어져 청바지가 그의 소유가 못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들의 성행위를 옆에서 훑쳐볼 수 있는 기회 정도는 갖게 될 것이다. 사디즘인가? 마조히즘인가? 그것은 자신이 치루는 성행위보다도 한층 더 흥분시키게 될 지도 모르지 않은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대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시각은 자정을 넘겼다. 신일지는 등을 기대고 있는 벽으로부터 스르르 미끄러지며 넘어지 듯이 모로 쓰러졌다. 김현수는 취한 눈으로 청바지를 건너다보았다. 어쩌면 좋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술 취해 늘 부러져 있는 사내를 떨 쳐내고 우리들만의 은밀하고도 감각적인 시간을 가질 수가 있지?

모든 인간은 처사하고 파렴치한이 될 충분한 자질을 지니고 있다. 단지 기회가 없든지, 있더라도 강한 이성이 그것을 자제시킬 뿐이다. 이성의 고리가 풀려나갈 때 사람들은 누구나 감성이 지배하는 야수의 늪에 빠져든다. 일반외과 전문의이며 현역 군의관 대위인 김현수라고 해서 별 게 아니다. 그 자리에 대학교수든, 국회의원이든, 기업체의 회장이든 어떤 직종의 어떤 인간이 대치되어 앉아 있어도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은 왜 터프한 마론부란드의 파괴성을 좋아하고, 하나같이 미니스커트에 오금을 저리며, 화투의 짝패에 정신을 잃고 밤을 새우는가? 수치심이나 도덕심의 허울을 벗겨낼 때, 사람들은 얼마든지 파렴치한이 될 수 있음은 성인이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제차 벌어진다면 그 자리를 눈감고 피해갈 사람은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 만약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가 있다면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임포이거나 성(性)에 대한 장애자임이 확실하다.

불륜의 관계로 치달았느냐 아니나 따위가 한 인간이 갖는 도덕성의 잣대가 된다면 해악의 환경을 아예

처음부터 피해버린 수도승이나 산 중의 스님들은 제외되어야 옳다. 그들은 동일한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니, 그들이 앞장서서 옳다 그르다 따위로 헛소리를 치며 판가름 내리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한 게임을 한 당사자가 무슨 할 말을 할 자격 있는가? 종교생활을 위해 혼자 사는 이들만큼 에고이스트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또 있는가. 책임질 결혼도 마다하고 부양할 가족도 거느리지 않겠다면서 살아가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저자거리의 대중들을 향해 깨우쳐 욕심을 버리라고 핏대를 올리며 외치었는데, 그게 도대체 될 법이나 한 노릇인가. 누가 있어 먹여주고 입혀주며 잠재워주는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 고된 일들을 하는 중에 파생하는 애증의 갈피들을 나무란다면 산속에 처박혀 신선놀음이나 하고 있는 당신네들이 대신 그 일들을 떠맡아야 한다. 혼자 떨어져 고고한 자세로 진흙탕 속에 뒹군 인간들을 구경이나 하자는 당신들이야말로 이기주의자의 표본이다.

물젖은 황진이를 꺼안고 몸을 녹여주던 스님의 십 년 공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 애통해 한다면 너무나도 비인간적일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물 젖은 여인을 품게 되면 성욕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것을 못 느낀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사고나 행위는 모든 것에서 예컨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바탕도 용납되어야한다. 그렇게 미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동물적이며 동시에 신(神)적이다. 그 차이는 그가 처한 여건에 따라서 판가름 날 문제이지 개개인의 심성이나 도덕률 따위로 척도해서는 곤란하다.

김현수의 눈짓 물음에 청바지 여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무슨 의미지? 이곳에서는 어렵다는 뜻인가? 여자가 늘 부러져 있는 사내 곁에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다.

- 일지씨 이불 덮고 똑바로 자요. 나는 윗체에 건너가 할머니 방에서 잘 테니 손님분과 함께 주무세요.

여자는 일단 말을 밖으로 토해낸 후, 망설임 없이 실천했다. 그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섬주섬 술상을 치우고 뒹굴고 있는 술병들을 뒷목에 늘어놓은 뒤에 벽에 걸린 외투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 오늘은 그만 주무세요. 이곳에 세 사람이 같이 자기에는 아무래도 너무 좁고 이불도 모자라요.

여자가 쪽문을 밀고 나갈 때, 그는 여자가 늘어뜨리고 있는 외투의 밑자락을 잡았다. 여자가 앞쪽으로 몸을 향한 채 잠시 멈칫 했다. 얼마 후 잡힌 외투 깃을 당겨 잡고는 그 자세 그대로 곧바로 밖으로 사라졌다.

여자가 나가버린 방안은 갑자기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노릇이기도 했다. 외딴 시골 방에서 싸구려 술판을 벌여놓아도 화사한 여자가 상곁에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관창은 술판이 된다. 그런데 별로 친하지도 않는 옛날 군대시절에 데리고 다니던 쫄병 한 명과 술상을 마주하고 하루 밤새도록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지고 만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섞여 선술집에서 옆 사람들의 술자리 이야기나 들으며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양질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현수는 갑자기 추연해진 느낌으로 돌아갈 길을 생각했다. 이곳은 도심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며 더군다나 그가 살고 있는 곳과는 지금 어떤 차편도 연결이 안되었다. 모든 운행수단이 두절되어버린 이 늦은 시각에 눈 내리는 겨울 시골 밤길을 어떻게 혼자서 걸어갈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그는 새우등을 하고 벽면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버렸다.

자리에 눕고 보니 미처 생각지도 못한 요의를 느꼈다. 문을 열고 나가려면 부엌을 통해 나가야 하니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 방안에서 해결해버릴 수는 없을까? 윗목에 늘려진 빈 술병 하나를 집어 들었다. 비어 있는 병은 그가 느끼는 요의의 분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짐작이 갔다. 나가자. 나가서 생각해보자. 다시 방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그 길로 서울로 향해 밤길을 걸어갈 것인지 판가름 지우자.

그는 방을 가로질러 쪽문으로 나가다가 그의 큰 키로 인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알전구를 이마로 들어 받았다. 순간 백열등은 심한 요동을 쳤다. 저쪽으로 밀려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전구를 그가 손바닥으로 가만히 막았다. 전구는 따스하고 포근했다.

문득 그는 두고 온 집을 생각했다. 연락도 없이 무작정 퍼질고 앉아 자정을 넘겨버린 이 시각에 그의 아내는 여러 곳에 전화를 내고 있을 것이다. 알만한 친구 집이란 집은 온통 전화를 걸어 늦은 밤에 법석을 떨게 분명했다.

- 혹시 오늘 그이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전화라도 걸려오지 않았던가요?

따위의 질문을 해대며 아내는 아마도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할 것이다. 그래, 그이의 생각대로 제대를 하고나면 즉시 귀향하여 병원 문을 열도록 하자. 친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니 이 기회에 신세를 지자.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을 돕지는 못할망정 지레 방해를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여자는 남자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활기찬 날개를 꺾기도 한다지 않는가.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늦은 밤에 혼자 추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면 어찌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무슨 자존심이라도 꺾일 일이 생기기라도 하나?

남자가 청바지 속에 감춰진 젊은 여자의 팽팽한 허벅지를 탐하고 있을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욕망 하나를 죽이며 밤을 하얗게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어렵게 귀향을 결심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대견해 하며, 그녀가 베풀 수 있는 본능적 사랑의 위대함에 혼자 감격해했다.

요의를 더 이상 참지 못한 김현수는 마침내 두 개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서는 은빛 가루가 쏟아지듯 눈이 풀풀 내리고 있었는데, 바람에 쓸려 눈들은 허공에서 곡선의 물결을 그리며 한 쪽 방향으로 휩쓸려 내려갔다. 이 집의 할머니가 기거하고 있다는 윗채를 보니 불이 꺼져 깜깜했다. 청바지는 외투를 둘러쓰고 할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을까?

그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한동안 진저리를 치며 되돌아 나와 부엌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윗채의 마루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가 없었다. 김현수는 숨을 죽이고 부엌문 옆의 담벼락에 몸을 바싹 붙였다.

윗채에서 나온 사람은 외투를 걸친 청바지였다. 그녀는 댕돌 아래로 내려서더니 잠시 주위를 둘러보는 듯했다. 김현수가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까? 그건 알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시선 방향을 가늠해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소변이 마려워 잠결에 나온 모양이지. 그녀가 화장실에 있을 동안 그는 어둠에서 마당 가운데를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다. 쌓인 눈을 밟을 때마다 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 후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온 여자가 화장실 문에 기대어 서서 혼자 중얼거렸다.

- 밤새 눈이 내릴 모양이지. 눈이 그치고 나면 날씨가 따뜻해지려나?

마당 가운데 서 있던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자가 놀라서 당황하지 않게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큰 동작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그럼에도 여자는 짐짓 놀란 체 했다.

- 어머. 김 대위님 아니세요? 아직 주무시지도 않고 추운 이곳에서 뭘 하고 혼자 계세요?  
-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소.

여자가 무슨 말인가를 다시 꺼내려고 했을 때 남자가 여자의 입술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여자의 입술이 남자의 손바닥에 눌러 한동안 음을 거렸다. 막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여자의 가쁜 목소리가 파열하듯 터져 나왔다.

- 이곳에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손바닥을 여자의 입술로부터 떼어낸 남자는 그의 검지를 똑바로 펴서 여자의 입술위에 세로로 세웠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다. 여자가 입고 있던 외투가 펄럭거렸다.

남자가 여자의 손목을 쥐고 윗채에 딸린 뒤란 쪽으로 끌고 갔다. 굴뚝을 비스듬히 떠받치고 있는 흙더미 위에 남자가 걸터앉았다. 여자가 남자의 두 무릎 사이로 바싹 들어와 가슴에 안겼다.

그가 그녀의 입술을 찾았다. 여자의 뜨겁게 달아오른 혀가 남자의 입속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굴뚝에 등을 기댄 채 오랜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윽고 남자가 여자의 외투 단추를 풀어 내렸다. 놀랍게도 외투 속에 여자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알몸상태였다.

그녀는 남자가 불러주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가? 아니면 원래의 잠자리 습성으로 옷을 벗고 자는 버릇이라도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은 행동을 지연시킬 뿐이다. 남자가 여자의 등허리를 두 손으로 감았다. 둘은 한 몸이 되어 종종걸음을 치며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마당으로 걸어 나가 채소밭으로 가꾸어 둔 얇은 둔덕을 이룬 곳으로 걸어갔다. 눈이 쾅쾅이 쌓여 있었다. 눈 위에 여자를 눕혔다. 여자가 눕히지면서 외투가 활짝 벌어지고 여자의 알몸이 눈 위에 눈부시게 투영되었다.

그는 천천히 바지를 내렸다. 여자는 흐느끼는 듯 때로는 요동치며 그를 안개 속으로 끌고갔다. <계속> 